조선대 총장 선출 규정 문제많다

간선제에 평가 척도 2가지 적용… 과열·혼탁 우려

"간선제 두번한 셈… 공정성 등 갈등 우려 개선해야"

오는 9월께 치러질 조선대 총장 선출 규정안이 직·간선제 혼합형태로 확정됐으나 새로 도입된 간선제 방식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요소가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대는 최근 총장선거 후보자 난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간접선거로 결선에 진출할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한 차례 직접선거로 당선자를 확정한다는 방식을 마련했다.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간선제는 ▲총장후보자 추천위(29명) 후보 평가(30% 반영) ▲간접선거인단(120명) 투표 결과(70% 반영) 등 두 가지 척도를 합산(100%), 최종 후보 3명을 선출하는 형태다. 압축된 후보들은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결과 1위와 2위 순위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그러나 '간접선거인단 투표 결과+'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 심사평가' 점수를 더해, 직선제 진출 후보를 결정키로 돼 있어 결과적으로 간접선거를 두 차례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됐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간접선거인단과 총장추천위를 상대로 두차례 사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의 직선제보다 더욱 혼탁하고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후보 예정자들도 총장선출 방안이 직선제 손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졸속 추진됐으며, 특히 간접투표와 별도로 학교내 특정 계층이 후보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대학 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간접투표에서 높은 득표를 했더라도 총장추천위 심사평가 점수가 낮아 미미한 차로 직선제 진출 후보에 들지 못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간선제가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함에따라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다"면서 "간접선거를 담당할 총장추천위나 간접선거인단 선정시부터 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는 등 이번 선거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연도 하고 혈압 체크 금연의 날인 지난 31일, 광주시를 비롯한 5개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및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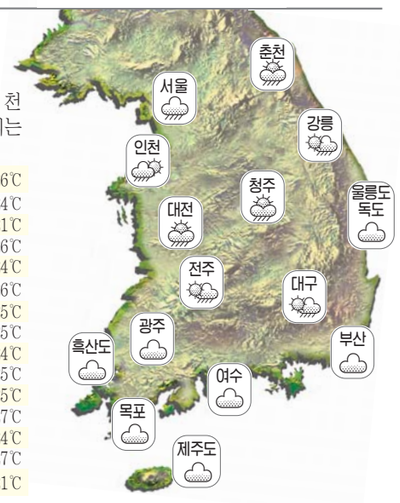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0분 / 해짐 19시 41분 — 달뜸 04시 31분 / 달짐 19시 15분

잔뜩 찌푸린 하늘

대기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 주	흐림	16/26℃
목 포	흐림	17/24℃
여 수	흐림	16/21℃
나 주	흐림	15/26℃
완 도	흐림	16/24℃
구 례	오후한때비	14/26℃
해 남	흐림	16/25℃
장 흥	흐림	16/25℃
순 천	흐림	15/24℃
영 광	흐림	17/25℃
진 도	흐림	16/25℃
전 주	오후한때비	16/27℃
군 산	흐림	16/24℃
남 원	오후한때비	12/27℃
흑산도	흐림	15/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높음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1:50 13:39	07:10 19:02
여수	08:27 21:04	02:33 14: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 씨						
최저/최고	16/27	16/29	17/28	17/26	17/26	16/28

안좌도 배널리 고분서 5세기 투구·갑옷 출토

동신대 조사단 발굴

신안 안좌도 배널리 고분에서 5세기 가야의 것으로 추정되는 투구와 갑옷, 칼 등이 출토됐다. 〈사진〉

이곳을 발굴 조사하고 있는 동신대 문화박물관 조사단(단장 이정호 교수)은 지난 31일 "배널리 3호분에서 투구, 갑옷과 함께 칼 5자루, 창 5자루, 화살촉 수십 점, 옥 수십 점 등 다량의 무기류가 출토됐다"고 밝혔다.

섬 지역에서 갑옷 조각이 나온 적은 있지만 완벽한 형태의 투구와 갑옷, 무기류가 함께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주와 무기를 함께 묻는 것은 가야 지역에서 유행했고, 가야계 수혈식 석곽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고분은 가야와 깊이 관련된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투구는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각이졌으며, 갑옷은 삼각 철판을 이어 만들었고 모두 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배널리 뿐만 아니라 안좌도의 읍동에서도 고분 2기가 발굴됐는데, 6세기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의 횡혈식 석실로 밝혀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민 요구사항 치안에 반영합니다"

광주경찰, 홈피 코너 운영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시민들의 체감 치안 만족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 치안요구' 코너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치안요구' 코너는 치안현안을 민원실(5개 항목)·지역 경찰(8개 항목)·교통(7개 항목)·수사(8개 항목) 등 4개 부문, 28개 항목으로 구분한 뒤 시민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하거나 의견을 글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광주지역 4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 발생 현황과 장소·요일·시간대별 그래프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재, 참여자들이 치안요구 선택을 용이하도록 해놨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시민 치안요구' 코너에 적힌 참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매월 치안시책을 분석·검토한 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꽃 모양이 종달새 머리깃 닮아

〈29〉 들현호색

'들현호색'은 20cm정도로 자라는 현호색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들현호색'은 양지바른 들판에서 자라기 때문에 밭두렁이나 논두렁에서 볼 수 있다. 잎에 자주색 줄무늬가 있고, 현호색속 식물 중에서 꽃이 늦게 피는 편이다.

현호색과의 속명에 붙은 'Corydalis'는 그리스어로 '종달새'를 의미하는데, 꽃 모양이 종달새의 머리깃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